



옛 전남도청 분향소 추모 행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옛 도청 민원실을 지나 정문 밖까지 길게 늘어선 시민들의 행렬이 '노풍(盧風)'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을 실감케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분향·촛불 문화제... 끝없는 애도 물결

노 前대통령 서거 이틀째, 광주·전남 곳곳 추모 열기

권위와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영정사진 속의 고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거 이틀째인 24일 광주시민분향소가 마련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등에는 하루 종일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동안 5천여명이 분향소를 찾았다. 광주 시민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 등 35명은 전남 분향소를 설치한 뒤 이틀 동안 옛 전남도청을 찾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근조(謹弔) 리본을 나눠주며 주변 정리를 하는 등 자원봉사에 나섰다.

조문객들을 맞이한 시민 이용현(47)씨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조문객들이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만 해도 5천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는데 줄이 워낙 길어 1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줄을 서기 시작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살배기 아들과 분향소를 찾은 이선기(32·담양군 대전면)씨는 "아직까지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 화하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사무실과 광주시 동구 송광사 광주교당 원각사, 윤림동 문민정사, 여주시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길, 순천시 좋은프라자 앞길 등에도 분향소가 마련됐다. 또 이날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근조 리본과 조기(弔旗) 달기, 추모문화제 등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는 애도 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시·전남도 청사 분향소 설치한다 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는 시·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각 청사 1층 시민홀과 윤선도홀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9시부터 29일까지 운영되는 분향소에는 24시간 시·도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옛 전남도청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차며 조문객은 옛 광주지방노동청 앞까지 200m 넘게 꼬리를 물었다. 이날 밤 늦게까지 하루

분향소를 마련한 자원봉사자도, 조문객도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며 영면(永眠)을 기원했다.

최홍엽(45) 조선대 교수(법학과)는 "고인을 추모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의 업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며 "왜 노 전 대통령이

이날 분향소에는 양초가 든 종이컵 300개가 준비된 가운데 조문객들이 직접 나서 촛불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자유토론을 하는 등 '애도의 촛불' 행사가 진행됐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당신은 너무 크고 약하고 소탈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함평 김요한 목사, 노 前대통령 추모 글 눈길

"당신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방망이로 휘둘러 한 생채취양자 운영자가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추모의 글을 남기며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목사는 이 글에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잘 사는 전직 대통령들도 많다"며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모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7월 3일 함평군 해보면의 생채취양자 '향토와 들꽃 세상'을 찾아 운영자인 김 목사(맨 왼쪽) 등과 함께 내비를 날려보내며 미소짓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다고 하기에 너무 소탈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기 전에 '최고 인격자'라는 인정을 하고 싶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다.

김 목사는 "노 전 대통령이 나에게 '같은 농사꾼끼리 힘을 합쳐 쓰러져 가는 농촌을 살려보자'라며 힘을 준 게 잊지 못할 것"이라며 "추진 속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라고 밝혔다.

'빙의 치료' 고교생 폭행치사·암매장 무속인 1명 실형·2명 집유

광주지법 선고

귀신을 퇴치하는 이른바 '빙의(憑依) 치료'를 한다며 고교생을 때려 숨지게하고 암매장한 무속인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징역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4일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송씨, 최씨의 경우 범행을 도운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가볍고, 치료 예기항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송씨 모두 자녀를 기르고 있고, 송씨는 임신 중인 점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께 담양군 한 점점에서 박모(당시 17·고교 1년)군을 빙의 치료하던 중 등과 배 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최씨와 함께 다음날 새벽 4시에 하도근 고군면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前대통령 서거 소식에 80대 실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기념사진을 애지중지 여겨온 80대 노가과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충격을 받고 실신...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는 애도 행사가 펼쳐졌다.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는 애도 행사가 펼쳐졌다.

Table with 5 columns: Auctioneer, Auction Item, Price, Location, and Remarks.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Auctioneer, Auction Item, Price, Location, and Remarks.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Auctioneer, Auction Item, Price, Location, and Remarks.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2009. 5.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이이숙